



사람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듯이 출판사도 마찬가지다. 도서출판 이프에서는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이 떠오른다. 여성이 사회의 약자에 속해 있는 현실은 21세기에도 변함이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도서출판 이프가 어느새 5주년을 맞고 있다. 주류 출판사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정 이즘을 내세운 출판사들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프의 색깔이다. 분명한 이프의 색깔만큼 똑 부러진 박옥희 사장. 20여 년 동안 페미니스트로, 여성 출판인으로 숨가쁘게 살아 온 그녀와 두 시간을 보냈다.

‘출판은 문화다’ 외치는 페미니즘 대중화의 기수

이프가 걸어온 길

박 사장은 여성신문사의 편집위원과 도서출판 이프의 이사를 거쳐 제3대 발행인을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if>라는 잡지로 알려져 있지만 도서출판 이프는 1999년부터 꾸준히 여성에 관련된 단행본들을 내고 있다. 주로 여성이 처한 사회적 현실인 성, 결혼, 육아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한편마다 박 사장이 가졌던 기획 의도는 분명했다.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것.

도서출판 이프 대표
박옥희

첫 '작품'은 김신명숙의 《미스코리아 대회를 폭파하라》라는, 제목부터 도전적인 소설이었다. 이후로 《사위에게 주는 요리책》, 《나는 제사가 싫다》, 《happy sex》 등을 차례로 출간한다. 그중 《happy sex》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여성의 성을 양지로 꺼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여성 문제들을 가장 민감하게 관통하는 것이 성적인 거거든요. 여성의 성은 억압에서 시작될 뿐더러 개인적으로는 허용되는데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이중성이 많아요.”

성문제 다음엔 동화에 많은 공을 들였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적체성은 사회적으로 습득되기 마련이다. 동화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은 수동적으로 그려진다.

아이들이 '양성은 평등하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고 싶은 부모들에겐 적박한 현실이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자는 심정으로 기획한 것이 《악이 되는 동화 독이 되는 동화》인데, 반응이 좋았다.

알리스 슈바르처의 《아주 작은 차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작이다. 이 책에서는 성을 매개로 하여 여성이 처한 문제를 보다 폭넓게 다뤘다. “저희들 이념하고도 맞고 독자들도 좋아해서 잘 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번역서 참 쉽게들 하는데 저희는 첫 번째 번역서예요. 더군다나 소모임에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을 때 보람이 참 컸죠. 25년 전의 독일 현실이 현재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반증시켜 줬죠.”

직장 여성의 육아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일하는 엄마들의 체험수기를 담은 《엄마 없어서 슬펐니?》가 그렇다. “기혼이 되면서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만 느끼죠.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굉장히 죄의식을 가져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그때 어디에 있었냐. 남성들도 육아를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겠다, 그래서 낸 것이 《아빠 뭐해?》다. 이렇듯 이프의 단행본은 일정한 당위와 필요에 의해 출간되고 있다.

지금 준비중인 책은 《별자리가 들려주는 여성의 성과 사랑》(가칭)이라는 번역서이다. 기존의 별자리에 따른 해석이 아니라 재미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출판이라는 게 한 시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집약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도서출판 이프 편집진과 함께

여성으로 살아가기

박옥희 사장의 출판과의 인연은 <서울신문>(현 <대한매일>)에서 카메라를 잡고 있던 사진기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신문사는 철저한 남성중심 조직이다.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비결은 남다른 성장기에 있었다. 10세 때 아버지를 여윈 박옥희 사장은 가부장제를 경험하지 않고 성장했다.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오빠들이 될 크게 내세우는 편이 아니었어요. 학교도 계속 여중, 여고, 여대를 다녔기 때문에 가부장에 대한 전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사회에 나와서야 그 벽을 느꼈죠.”

때문에 무조건 분노하는 대신 그녀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

“내가 좀 유연하게 접근했던 거 같아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키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책상 닦고 차 끓이는 일들 말이에요. 난 그런 거 못하는 여자다 하면서 무시했죠. 상사가 못살게 굴어도 신경을 안 썼어요.” 1970,80년대 시대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직장 생활이었다. 당시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엄청난 분노를 느끼며 여직원들끼리 모임을 갖고 단체 행동을 했다. 여성이 놓인 불평등한 위치에 대해 그녀는 구체적으로 절감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 페미니스트로서의 의식이 싹튼 후 결혼생활은 원만할 수 있었을까. 시대과의 갈등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시집에 가장 나쁜 여자가 되리라 마음먹었어요. 애초에 나에게 전혀 기대를 하지 못하게 말예요.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과는 입사 동기이기 때문에 일단 동등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제가 설득을 잘하는 편이고 남편도 이해심이 깊어요. 안 되는 것에 대한 자기 입장을 확실히 하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아이들 문제 역시 명쾌하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실천하니깐 잘 받아들여요.” 그녀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도 수학이나 영어 같은 성적에 관한 과목은 보내지 않았다. 다른 학부모도 만나지 않았다.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 들으면 흔들리니까. 아이들이 친구들 엄마와 견주며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른 엄마가 아니야. 니들 엄마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녀는 여성이 살아가는데 보다 나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출판을 한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티미스코리아 페스티벌을 열어난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2002년부터 미스코리아 대회에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가 손을 떼는 소득을 얻었다. 다들 '왜 그렇게 미스코리아를 싫어하느냐. 더한 것도 TV에 나오는 세상인데' 하지만 박 사장은 완강하다. "미인대회는 가장 극명하게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외모 지상주의에 빠뜨려 여성에게 도전 정신을 없애요. 몸이나 얼굴로 승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계간 <if>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우리에게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하나밖에 없는 잡지다. "책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데 다들 놀라요. 광고를 주는 회사가 있다는 게 더 놀랍다고들 해요. 기존 시장에도 정보나 철학을 담은 여성주의 잡지는 있었죠. 저희 문화를 이야기해보는 잡지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업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자. 그래서 특집 같은 것도 '남자는 어머니를 모른다' '이제는 낙태를 말한다' 같은 현실적인 주제를 잡았구요. 여성의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는 걸 환기시키고 싶었죠." 여성문제라는 것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이프가 다루는 특집들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반향을 일으켜왔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출판은 문화 운동이다. "출판하는 사람들은 문화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운동으로 단번에 사회가 바뀌진 않지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고양된 운동의 일원이다 생각하고 출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출판사들이 저마다 소신을 갖고 책을 내는 것처럼 저희는 여성주의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인터뷰 중 박 사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2002년부터 공중파에서 방영하지 않게 된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 이는 비단 미스코리아 대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골리앗만큼 거대한 벽이다. 이프가 다윗처럼 던진 돌팔매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자본 세력들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출판이란 산업이기 이전에 문화다. 박 사장이 운동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한다는 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프의 편집진 12명과 박 사장은 다윗처럼 돌을 던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더 큰 골리앗들을 쓰러뜨려야 하니까. **▶▶**

취재 강경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